서대원/뇌신경센터/*****1010/20171111155230
092271510383158

厚生新報
www.whosaeng.com
후생신보

# 척추, 종양, 혈관등 수술 중 신경계 감시 합병증 예방 효과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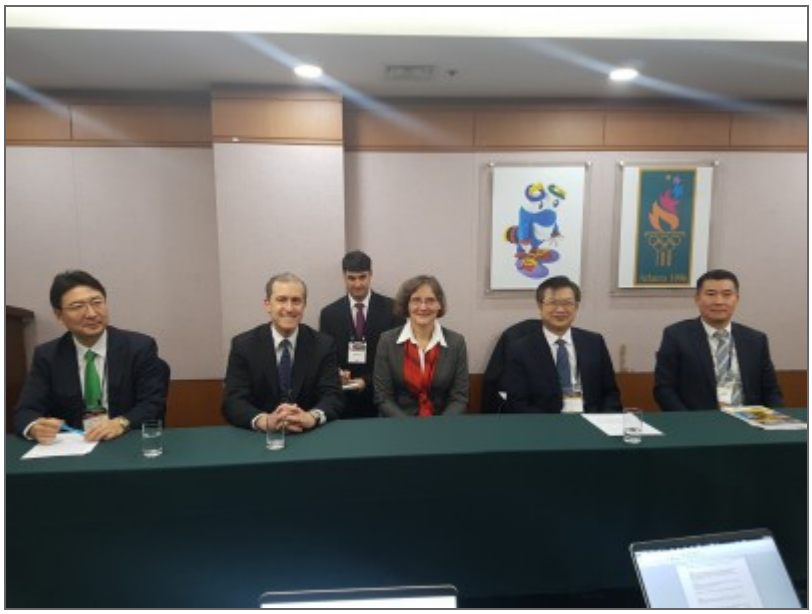
수술중신경계감시연구회, '우리나라 비약적 발전…의료진 관심 필수적'

기사입력시간 : 2017/11/07 [08:56:00]

윤병기 기자

【후생신보】전 세계적으로 수술 중 환자의 장애나 후유증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신경계 감시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근 수술 중 신경계 감시 분야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수술중신경계감시연구회(회장 김주한 한양의대 신경과)는 최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아시아 최초로 국제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y, ISIN)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충남의대 신경과 김재문)와 함께 교육과정(6th International Society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y Congress and Educational Course)을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는 물론 미주, 유럽, 중동 등 38개국에서 참여했으며, 35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수술 중 신경계 감시는 수술 중 신경손상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자 수술 중 실시간으로 신경계의 이상 여부를 추적・감시하고 주요 신경계의 구


본 문자는 남영사불행한 자신입니다.허가없이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습니다.

서대원/뇌신경센터/*****1010/20171111155230
092271510383158

조를 파악하는 검사기법이다.

이러한 신경계 감시는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 마비 등을 예방함으로써 환자가 치료 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척추, 종양, 혈관, 기능 등 중요 신경계 수술에 적용되고 있는 신경계 감시는 국내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유무가 결과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수술중신경계감시연구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연구회 측에서 제공한 연구결과에도 경동맥수술시 수술중신경계감시를 한 경우 수술과 연관된 합병증인 뇌졸중이 4%에서 관찰됐으나 수술중신경계감시를 한 경우 이러한 합병증의 빈도가 7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길 조직위 교육위원장(강남세브란스 재활의학과)은 "해당 검사는 신경 자극과 신호를 해석을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및 신경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신경 신호가 잘 나오도록 특수한 마취방법을 실시하는 마취과 전문의, 수술을 총괄하는 집도의간 협력이 무엇보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수술 중 신경계 감시의 역할은 환자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국내 의료진들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게 연구회 측 지적이다. 이는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350명 중 국내 의료진은 10%에 불과하다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연구회 서대원 총무이사(삼성서울병원 신경과)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경우 각 개인들이 익숙한 술기와 방식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술기나 경험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국내 수술 중 신경계 감시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경우 해외보다 수술 중 신경계 감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대원 총무이사는 "아직 수술 중 신경계 감시와 관련 국제적 가이드라인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소형 장비와 최소 인력으로 여러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안착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국내 의료진의 관심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본 문서는 셀프사실명확 저작입니다. 허가없이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습니다.

서대원/뇌신경센터/*****1010/20171111155230

092271510383158

자리 잡힌다면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국제신경계감시학회(ISIN) 하인리히 하이네 회장은 "한국의 경우 비약적인 발전과 모든 기법을 활용해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전 회원들과 협력해 수술 중 신경계 감시가 보다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문서는 담당자들명은 자신입니다.허가없이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습니다.